

[한국인 23명 아프간서 피랍]

구출 작전이나 석방 협상이나... 초조·긴장

■ 정부 대책반 현지 도착

“무사귀환 최우선” 대통령이 구명 메시지 외교력 총동원 납치세력과 직간접 접촉

아프가니스탄 무장세력 탈레반에 의해 한국인 23명이 피랍된 지 23일로 5일째를 맞고 있지만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휩싸여 있다.

게다가 애초 아프간에 주둔중인 동의·다산부대의 철군을 요구하며 인질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던 탈레반 측이 인질 맞교환이라는 ‘진짜’ 카드를 제시하며 새로 설정한 ‘살해 경고시한’이 지나면서 위기지수는 높아만 가고 있다.

대국민 메시지 발표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노 대통령은 1차 살해 시한을 2시간 앞두고 이미 예정돼 있던 연말 철군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납치단체와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는 국내인론은 물론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 타전했다.

납치세력과의 직접 협상 루트를 뚫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한 메시지 주고받기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대규모 피랍 소식이 국내에 전해진 것은 지난 20일 정오가 조금 지나서였다. 로이터 통신이 한국인 피랍 소식을 전 세계에 타전했고, 앞서 이날 피랍 첩보를 입수했던 정부는 외교부와 아프간 현지에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어 이날 밤 늦게 탈레반 측은 21일 오후 4시30분을 시한으로 한국군과 독일군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양국 인질을 살해하겠다는 통첩을 전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전날 지방행사 참석차 충남 계룡대에 머물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일정을 전면 취소한 채 급거 귀경했고, 참모들의

한국인에 대한 그 어떤 소식도 전해지지 않아 입술이 바짝 타 들어갔던 정부는 오후 6시30분 2차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동시에 한국 정부의 협상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인을 아직 처형하지 않았다는 알 자지라 방송의 단비 같은 보도가 날아들었다.

하지만 시계바늘이 21일 자정을 향해 갈 즈음 탈레반 측은 아프간 감옥

에 갇혀있는 탈레반 죄수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한국인 살해 협박을 했다는 보도가 날아들었다. 그러면서 그 시한도 22일 오후 11시30분으로 못박았다.

피랍 사흘째를 맞은 22일 오전 정부는 세 번째 긴급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 대응을 업데이트하면서 지침을 마련했다.

전날 서울을 출발, 이날 오후 2시55분 아프간 현지에 도착한 조중표 외교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현지 대책반도 협상 루트를 통해 접촉에 들어갔고, 정부 지침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다.

탈레반 측이 공언한 2차 살해 시한이 지나면서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피랍자들의 안전은 직·간접 루트를 통해 납치세력과 접촉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외교력에 달려 있는 셈이다.



지난 13일 아프가니스탄 봉사 활동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 촬영한 샘물교회 봉사단의 모습. 가운데 부분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여성은 환송객으로 이번 피랍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한국인 피랍 시간대별 상황	
20일	12:36 로이터통신 '한국인 아프간서 탈레반에 피랍' 보도 13:30 외교부 '피랍 소식' 보도 14:00 정부, 협상대책반부 회의 소집 14:18 외교부 소시통 '피랍 인질 23명, 기뢰교란체 소파' 15:05 외교부, 한국인 '20여명 피랍' 공식 확인 21:24 AP통신, 탈레반 '죽일 것' 인질 위협 22:41 AP통신, 탈레반 '한국군 철수' 요구 및 '인질 위협' 보도
21일	00:29 로이터통신 '한국인 아프간서 탈레반에 피랍' 보도 08:29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피랍 한국인 인질 석방' 위해 모든 노력 기울여달라' 언급 14:30 노무현 대통령 CNN에 국내 TV 방송사 생중계 메시지 발표 '피랍자 조속하고 안전한 귀환 촉구' 14:33 AP통신, 탈레반 대변인 '인질 23명, 한국인 인질' 문명 아직 결정 안됐다' 보도 15:50 AP통신, 탈레반 대변인 '인질 23명, 한국인 인질' 문명 아직 결정 안됐다' 보도 15:50 정부 당국자 '9시간 무장단체와 협상' 유지 중, 외교부 '체포한 전지갑' 보도 15:50 로이터통신, 탈레반 '죽일 것' 인질 위협 22:32 AP통신, 아프간 '20여명 인질' '죽일 것' 인질 위협, '인질 살려달라' 요청 보도 23:00 AP통신, '인질 23명, 한국인 인질' 문명 아직 결정 안됐다' 보도 23:18 일지매, 탈레반 대변인 '인질 23명, 한국인 인질' 문명 아직 결정 안됐다' 보도 23:48 로이터통신, '인질 23명, 한국인 인질' 문명 아직 결정 안됐다' 보도
22일	06:38 로이터, 탈레반 '죽일 것' 인질 위협, '인질 살려달라' 요청 보도 11:00 정부, 2차 안보정책조정회의 열어 '살해 시한' 논의 11:00 국회, 국방위, '태양'으로 협상하기 위해 서유석 장관을 아프간 보냈다 14:30 조중표 외교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 대책반, 아프간 수도 카불 도착, 협상 시작

아프간 정부 협조가 관건

■ 피랍 인질-탈레반 죄수 맞교환 가능할까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된 한국인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탈레반이 한국인 인질 23명을 풀어주는 대가로 같은 수의 탈레반 수감자와의 맞교환을 제안한 가운데 정부가 피랍자 귀환을 위해 정부 대책반을 현지로 파견하는 등 석방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무장세력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다. 과거 탈레반이 탈레반 수감자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외국인 인질을 풀어준 사례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의 아프간 주재 특파원인 다니엘 마스트로자코모 기자의 신빙 처리가 대표적 사례. 마스트로자코모 기자는 지난 3월 5일 아프간 남부 헬만드주에서 통역, 운전기사와 탈레반에 의해 납치됐다가 2주일 만에 무사히 풀려났다.

이탈리아 정부는 탈레반의 요구대로 수감자를 풀어주도록 아프간 정부를 설득했으나 아프간 정부는 '테러

맞교환 사례 1건뿐 석방 결단 여부 촉각

조직과의 협상은 없다'는 원칙 아래 난색을 표하다가 자국 주둔 이탈리아 병력이 철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마침내 탈레반 재소자 5명을 풀어주는 데 동의했다.

실제 탈레반은 이어 4월 초에도 프랑스 구호요원 2명을 납치하고 이들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탈레반 수감자의 석방, 나토 일원으로 주둔 중인 프랑스군의 1주일 내 철수 등을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당당히' 요구할 만큼 대담해졌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 수감자를 선택 석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석방→납치 확산'의 악순환 고리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데다 국제 사회의 여론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레반 수감자의 석방이 본질적으로 아프간 정부의 손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해 아프간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아프간 정부가 인질과 탈레반 수감자를 맞교환하는 '거래'에 동의해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이 앞서 마스트로자코모 기자의 석방을 위해 탈레반 수감자를 풀어줄 때, 국제사회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이를 단 한 번에 한하는 '1회성 거래(one-time deal)'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탈레반 무장세력에 피랍된 인질 가운데 무사히 돌아오지 못한 사례도 있어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월11일 아프간 남부 헬만드주에서 독일회사 직원인 알바니아인 4명은 차량 이동 중 납치됐다가 결국 죽음을 맞았다. 같은 해 4월28일 아프간 이동통신회사 로 산사(社)에서 일하는 인도인 기술자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연합뉴스

7차례나 뒤바뀐 인질 숫자

현지 합류·중도 이탈자설 등 겹쳐 혼신

아프가니스탄 피랍자 수를 둘러싼 혼선이 납치세력인 탈레반 측의 확인으로 23명으로 정리됐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떠난 사람들과 현지 체류자들이 합류해 파악이 어려웠던데다 큰 사건에서 종종 제기되는 '중도 이탈'이라는 미확인 정보, 그리고 피랍자 일부의 현지에서 구사능력이 더해지면서 실랑실래를 불러온 셈이다.

한국 정부는 피랍 사실이 확인된 20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피랍자 수를 '20명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날 저녁 때 '23명'으로 적시했다가 몇시간 후 '21명'으로 조정하는 등 확인 파악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

이 와중에 아프간주재 한국대사 관측이 피랍 당시 한국인들을 태웠던 버스 운전기사, 피랍 한국인들이 마지막으로 식사를 했던 한국 식당 관계자들의 증언을 기초로 피랍자를 23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다시 늘어났다.

그러나 탈레반이 20일 밤 늦게 공식적인 요구사항을 처음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시 혼선이 빚졌다. 당시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한 카리 유수프 아마다가 AP통신에 위장전화를 걸어 한국군 철수 요구를 전하는 한편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8명의 한국인을 살해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피랍자 수는 다시 오리무중으로 빠져들었다. 탈레반이 '18명'이라고 밝혔지만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브리핑에서 '23명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

이후 탈레반측의 아마다가 다시 의신과 회견을 하면서 인질 수는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마다는 AP통신과 통화에서 한국인 인질과 같은 수의 탈레반 죄수 교환을 희망하면서 인질 수를 22명이라고 들린대 이어 곧 로이터·AFP 통신과 통화에서는 23명으로 바로잡았다. /연합뉴스



21일 아프가니스탄 경찰들이 피랍 한국인들이 타고 가다 납치됐던 관광버스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Co-Entertainment and Artist ACCOMPANY by arrangement with The Really Useful Group

세계 최장기 공연에 빛나는 감동의 신화

브로드웨이 오리지널팀 뮤지컬 캣츠 내한공연!

2007. 9.7 (월) ~ 16 (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화~코로실 8시 / 프로미싱 7시 / 후시 7시 30분

주최: 광주문화예술회관, KCTV, KT

주관: 광주문화예술회관

후원: 광주광역시

공연문의: 062)220-0541, 1588-0768

입장권구매: 인터파크, 인터파크, 롯데, 인터파크